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 송은범 대신 신창호



줄부상 KIA 마운드 신인으로 반전...오늘 첫 선발  
신창호 “어차피 승 아니면 패...자신있게 던지겠다”

부상에 KIA 마운드는 여전히 시험 중이다. 송은범이 부상으로 빠진 마운드에 신창호가 투입된다. 신창호는 29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생애 첫 선발로 출격한다.

팀의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됐다. 위기를 넘어야 KIA 그라운드에도 평화가 찾아온다.

매년 반복됐던 KA의 부상,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시범경기 첫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김진우를 시작으로 김주형, 김주찬, 이범호, 김선빈, 김민우, 임준혁, 송은범이 부상일지에 이름을 올렸다.

그나마 올 시즌에는 야수 백업진이 눈에 띄게 탄탄해지면서 타선의 공백은 치명적이지 않았다. 문제는 마운드다. 올 시즌 수술대에 오른 투수만 해서 세 명이다.

불펜진의 새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광정

철이 무릎 수술로 시즌이 늦어졌고, 신인 차명진과 우완 박지훈도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베테랑 유동훈도 무릎 부상으로 캠프에서 조기 귀국한 뒤 재활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불펜도 불펜이지만 선발 공백이 더 큰 고민이다. 윤석민의 해의 진출로 비어버린 한 자리에 외국인 투수 카드 한 장은 뒷문 단속을 위해 마무리로 사용했다. 지난 14일 김진우가 1군에 합류하면서 선발진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 같았지만 선발 로테이션이 정상가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송은범이 빠졌다. 롤러코스터를 타던 송은범이 지난 23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모처럼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공을 보여줬지만 3회 시작과 함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쪽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근육 부분파열로 두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

하게 됐다.

다시 또 선발 고민에 빠진 선동열 감독은 신창호 카드를 선택했다. 신창호는 송은범이 부상으로 급히 자리를 비웠던 23일 한승혁에 이어 마운드를 넘겨받아 3이닝을 안타 없이 불넷 하나만 허용하며 눈길을 끌었다. 팀이 1점을 만회하지 못하면서 경기는 2-3 패 끝나기는 했지만 신창호의 재발견이었다. 과감한 피칭으로 어필을 한 신창호는 패전조에서 일약 선발로 도약했다.

신창호는 “어차피 결과는 승 아니면 패다. 평소와 같이 긴장하지 않고 자신있게 내 공을 던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승혁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한승혁은 지난 4월 김진우가 빠진 자리에서 ‘깜짝 스타’로 등극하기도 했었다. 경험 부족으로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하기도 했지만 KIA가 기대하고 있는 선발 후보다.

KIA 마운드가 위기를 딛고 탄탄하게 자리를 다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창호

## 덕아웃 말·말·말

▲“자세가 틀렸어.”

28일 덕아웃에서 김주형의 ‘번트 강의’가 진행됐다. 방망이를 든 김주형은 친구 김다원에게 “자세가 틀렸다”며 직접 시범까지 보였다. 사연은 이랬다. 김다원은 전날 4회 무사 1루에서 번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삼진 아웃을 당했다.

전날 경기에 대해 얘기하던 박기남과 김주형은 타격 흉내까지 내면서 김다원을 놀렸다. 그리고 내친 김에 번트 강의까지 진행했다. 거포 김주형이지만 ‘번트 마스터’로 통할 정도로 수준급 번트 실력을 가지고 있다. 김주형 스스로도 “번트가 가장 쉽다”고 얘기할 정도다. 김주형의 강의 내용은 이랬다. “방망이를 앞으로 내고 있어야 한다. 헤드 가 뒤로 가 있는 순간 끝이다.” 강의를 끝낸 김주형은 당당한 걸음으로 타격 훈련을 하러 그라운드로 향했다.

## 김주찬, 부상뒤 첫 훈련 소감 “아파요”

▲“아파요.”

28일 훈련에 앞서 반기운 이의 특타가 진행됐다. 16번 유니폼 차림의 김주찬. 지난 11일 김주찬은 한화의 경기 도중 슬라이딩을 하다가 손가락 사이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봉합수술을 하고 재활을 했던 김주찬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챔피언스필드에서 방망이를 들었다. 28일에는 글러브까지 끼고 외야로 나가 선수단과 호흡을 맞췄다. 복귀를 향한 전격 김주찬의 소감은 “아파요”였다. 실밥을 꿰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으면서 아직 부상 부위에 통증을 남이었다. 방망이를 들고 복귀를 위해 첫걸음을 댄 김주찬은 29일에는 합평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퓨처스리그에서 출전해 경기 감각을 조절할 예정이다.

▲“물랐어요.”

두산 포수 김재환이 공 하나에 2500만원을 벌었다. 김재환은 지난 2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의 경기에서 8회 대타로 출전했다. 2사2루에서 타석에 선 김재환은 김태영의 초구를 강타해 우중간을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만들었다. 김재환의 공은 외야에 설치된 훈련용 구조물에 맞으면서 ‘KIA 훈련존’ 1호 훈련이 됐다. 예고한대로 김재환에게는 K5가 부상으로 주어지게 됐다. 올 시즌 KIA는 기아자동차의 후원으로 특급 훈련존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경기에서 챔피언스필드 개장 훈련에 이어 진짜 경기에서도 2500만원 짜리 훈련을 때려낸 김재환의 반응은 “물랐어요”.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어린이·청소년 초청 오늘 ‘러브펀드 데이’

KIA 타이거즈가 ‘타이거즈 러브펀드 데이’를 실시한다.

KIA가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두산전에서 제 1회 ‘타이거즈 러브펀드 데이’를 갖고 영신원과 무등유아원 등 광주지역 9개 시설 어린이와 청소년 108명을 초청한다.

‘타이거즈 러브펀드’는 국내 최초로 모기업-프

로구단이 연계해 펼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경기 기록에 따라 KIA 선수와 구단 임직원 및 기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 시즌 종료 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시구는 정상훈(동일전자정보·18세)군이 하고, 시타는 2011~2013년 평균 235만원을 기부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조립1부 강명환 기사

가 한다.

KIA는 오는 7·8월에는 러브 펀드 지원을 받고 있는 야구 유망주를 초청해 장학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몽골 및 국내 야구동아리 어린이들을 초청해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타이거즈 러브펀드 데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구는 박찬호...포수는 류현진 2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에 앞서 박찬호가 시구하고 류현진이 포수 자리에서 공을 받았다.

## LA다저스 ‘한국의 날’

사인회·인터뷰 등 행사 다양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홈구장 다저스타디움에 ‘한국 잔치’가 벌어졌다.

다저스는 신시내티 레즈와 홈 경기가 열린 27일(현지시간)을 ‘코리아 나이트’로 정해 경기 전에 다양한 한국 관련 행사를 열었다.

‘코리아 나이트’의 시작은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로 다저스에서 전성기를 보낸 박찬호(41) 특별 사인회로 시작했다. 다저스타디움 정문 앞 박찬호 사인회장에는 다저스 팬 200여명이 길게 줄을 지어 차례를 기다리다 박찬호의 사인을 받고 즐거워했다. 다저스 구단은 박찬호와 류현진(27)을 나란히 다저스 인터뷰룸에 초청해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찬호는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국민들에게 힘을 줬던 좋은 추억이 있는 다저스타디움을 다시 방문해서 감격스럽다”면서 “류현진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어 흐뭇하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작년 코리아 나이트 행사 때도 추신수 선배와 함께해서 좋았는데 올해는 대선배를 모시고 뜻깊은 행사를 열어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둘은 식전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시구에서 호흡을 맞췄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마운드에서 던지고 한국 프로야구에서 곧바로 메이저리거로 직행한 첫번째 선수 류현진이 포수 자리에서 공을 받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가수 정용화가 애국가, 알리는 미국 국가를 차례로 불렀다.

이날 경기장에 입장한 관중은 모두 류현진의 머리카락 인형(바블헤드)을 받았다. 머리카락 인형은 다저스 팬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사은품으로 주로 스타급 선수만 머리카락 인형 제작 대상이다. 다저스는 류현진의 인형 5만개를 제작했다.

/연합뉴스